

# 안개핀조경 ‘쿨링포그 시스템’ 산자부 혁신제품 지정

## 전년 조달청 혁신제품 이어 올 시범구매대상 기업 선정

함평군 토종기업 안개핀조경(주)이 2022년 조달청 혁신제품지정에 이어 2023년 혁신제품시범구매 기업으로 선정됐다.

조달청혁신제품이란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국내제품으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제품보다 우수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말한다.

안개핀조경(주)의 쿨링포그 제품은 전국 30여곳의 공공기관에서 구매요청을 받으며 조달청 혁신제품구매사업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쿨링포그란 주변 온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안개형태로 물을 분사시키는 장치로 해외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설치된 야외 증발냉방장치이다.

그동안 쿨링포그 제품들은 해외제품 의존도가 높았지만 안개핀조경(주)은 각종 특허 및 우수발명품 인증 등 국산화를 주력으로 혁신제품 지정까지, 기술력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앞장섰다.

안개핀조경(주)의 혁신제품은 4종의 상품이 조달청혁신장터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까지 10여종의 제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안개핀조경의 쿨링제품은 경관조명과 조형물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특허로 이루어져 있기에 국내시장에 맞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보급되고 있다. 전국지사망을 개설해 제품의 설치와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재현 안개핀조경(주) 대표는 “6년 동안 국내 추이에 맞는 디자인, 제품력 등을 연구 개발해 10여개 이상 특허를 보유하고 됐다”며 “전국 200여곳 공공장소에 설



함평군 토종기업 안개핀조경(주)이 2023년 혁신제품시범구매 기업으로 선정됐다.

치한 쿨링포그가 그 공공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바이어들을 통한 구매문의에 맞춰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개핀조경(주) 제공

조진용 기자

## 소상공인 희망대출 이자지원 함평군, 3년 거치 일시상환

함평군이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지원에 나선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희망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3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대출금(최대 3000만원)에 대한 이자 중 3.0%를 최장 3년 간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희망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함평군지부, 광주은행 함평지점, 영광함평신협, 함평천치새마을금고, 나비골농업협동조합, 함평군산림조합 등 6곳이다.

함평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6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협의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함평서 대한민국 난 명품대제전 함평군, 25~26일 체육센터

‘2023 대한민국 난 명품대제전’이 한국춘란의 최대 자생지 함평군에서 열린다.

함평군은 2023 대한민국 난 명품대제전이 오는 25~26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난 명품대제전은 한국춘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함평에서 개최한다.

‘한국춘란의 미래, 함평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는 화예품과 엽예품 등 한국춘란 45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함평문화체육센터에 출품 신청하면 된다.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에 대통령상과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밖에 농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150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함평=신재현 기자

## 남해신사 춘계 대제 봉행 영암군, 주민 무사안녕 기원

영암군 남해신사제례보존위원회는 시종면 옥아리 마한문화공원 내 남해신사(도지정기념물 제97호)에서 주민과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신사 춘계 대제를 봉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제에는 초헌관 소상원(영암부군수), 아헌관 황용주(올해의 왕인), 종헌관 방정재(시종면장) 등 12인의 제관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국태민안과 주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남해신사 대제는 강원도 양양의 동해묘와 황해도 풍천의 서해신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신제 중 하나이다.

3대 해신제 중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남해신사 대제는 주제자의 선정은 물론 제사 시기, 제사 참여 집단, 봉헌물에 대해 국가가 규정을 정해 관여했던 국가 차원의 큰 제사로 알려지고 있으며 영암군에서는 매년 남해신사 춘계 대제와 추계 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영암군, 시공업체 설명회

영암군은 최근 군청 왕인실에서 2023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시공업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사업 선정 농가 및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사업 추진요령을 공유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시공업체 별로 자사 시공에 대한 설명과 홍보 시간을 통해 사업 대상 농가가 맞춤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23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농산물 상품성 제고와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2억1400만원 사업비를 들여 9.9㎡형 112동, 66㎡형 7동을 지원한다.

당당 단가는 소형의 경우 630만원, 중형의 경우 7000만원으로 이 중 50%가 보조 지원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 무안읍~남악·오룡버스노선 개통 무안군, 100번 버스

무안군은 지난 17일 일요일 오룡차고지에서 무안읍~남악·오룡을 운행하는 100번 신규 버스노선 개통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좌석버스인 100번은 무안읍~청계면~목포터미널~이마트~옥암~남악~오룡(36.3km)을 왕복하는 노선이다.

평일 1일 24회, 주말·공휴일 1일 16회 운행하며 버스요금은 일반 2100원, 초중고 및 청소년은 100원(카드 결제 시)이다.

100번 버스 개통은 남악·오룡개발로 신도시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무안읍과 연결되는 직통 버스노선이 없어 통학과 출·퇴근 등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김산 군수는 “100번 버스 운행은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통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나광국 전남도 의원, 임동현 무안군의회 부의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 해남 보해매실농원 매화꽃 활짝

지난 18~19일 매화축제가 열린 해남군 산이면 보해매실농원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북적였다.

축제 기간 문화 공연과 체험놀이, 포토존 조성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해남 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도 함께 운영됐다.

해남군 제공

해남 18~19일 매화축제가 열린 해남군 산이면 보해매실농원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북적였다. 축제 기간 문화 공연과 체험놀이, 포토존 조성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 목포 남진야시장 17일 재개장... 먹거리·즐길거리 풍성

목포시가 전통시장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동절기 동안 휴장했던 자유시장 내 남진 야시장이 재개장한다. 남진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전통시장의 야간영업을 넘어 추억·문화·창조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개장 첫날에는 우리지역 출신 가수인 윤선영의 축하공연과 함께 농수로의 공연 등 행사가 진행된다.

판매대에는 낙지호프, 초밥 등 다양한 먹거리와 핸드메이드 소품, 방향제, 잡화

등의 프리마켓 21개 매대가 판매를 준비하는 등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풍성한 야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 출신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남진씨의 이름을 딴 남진 야시장은 2015년 말 첫 개장했다.

목포역에서 멀지 않고 대표 관광명소인 삼학도가 인근에 위치해 여행객과 시민들 모두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목포시는 청호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청호시장 모바일 디지털시장이 문을 열었으며 지난 2월말까지 250여건의 인터넷 주문이 이뤄지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 강진군, 사찰음식 체험관 ‘도반’ 문 열어

### 24일부터 정상 운영

강진군은 지난 17일 사찰음식 체험관 ‘도반’ 개관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민선 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맛과 음악의 도시’ 강진 건설을 위해 옛 예향 한정식 음식점 건물을 활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

후 ‘홍승스님’을 최종 선정했다.

체험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원을 활용해 지난 12월부터 3개월의 공사를 거쳐 개관식을 갖게 됐다.

개관식에는 강진원 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 권석민 강진경찰서장, 이병삼 강진교육지원청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과 종교인을 포함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군은 식문화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찰음식 요리 레시피 개발, 요리사 양성 등을 통해 강진을 사찰음식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진 사찰음식 체험관은 개관행사 후 오는 24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강진=김윤복 기자